서울특별시

지역사회 탈시설 간담회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○ **(일시 / 장소) '22.09.21(수) 14:00 ~ 16:00 /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 1**

○ **(참석자)** 동작구의회 구의원 (장순욱 구의원), 탈시설 장애인(이순자), 탈시설장애인가족(이용란), 지역사회 주민대표(박덕경 행복복지재단 이사장),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(송은일 센터장) 이상 **5인**

○ **(주요내용) 동작구 탈시설 지원 방향에 관한 간담회 진행**

□ 간담회 논의 안건

① (동작구)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법적, 제도적 대책 마련

○ **(배경 및 현황)** 7.11 공포된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계기로 동작구 내 탈시설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공감대 형성, 예산 마련 및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준비 필요 공감

- **(논의)** 조례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, 지역사회 주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청회 및 지역사회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(장순욱 구의원)

② (동작구)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 대책 마련

○ **(배경 및 현황)** 동작구 내 자립생활 주택 1곳, 탈시설 체험 홈 전무, 시 또는 구에서 지원하는 탈시설 정책 전무

- **(논의)** 동작구 내 주거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간절한 위기의식으로 준비해야 함.
- 동작구 내 유일한 자립생활 주택은 지리적 접근성, 건물의 노후화, 높은 층고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함. 최근 몇 년간 공실로 확인됨. 자립생활 주택 마련을 위해 SH공사의 장애인 체험홈 지원 절실(박덕경 이사장)
- 센터 간 공동의 노력으로 '자립생활주택 및 탈시설 체험홈'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필요. 지역사회 내 탈시설 환경 조성 노력 지속(박덕경 이사장)

③ (동작구)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 및 일자리 대책 마련

○ **(배경 및 현황)** 탈시설 정착금 제도는 있으나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시설 이용자 중 탈시설 정착지원금을 받은 장애인은 전체 대비 22%에 불과함. 정부 주도에 탈시설 장애인 교육 및 시 주도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임

- **(논의)** 장애인에서 탈시설을 결심할 때 초기자본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음. 서울시 중증장애인인턴제 및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초기자본을 마련할 수 있었음(탈시설 장애인 이선자)

- 동생이 탈시설 후 말문이 트이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였으며, 가족들도 변화된 동생과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, 시설에서 탈시설을 하고 싶어도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하기 힘든 것이 사실임. 동생 같은 경우 탈시설 정착지원금 한 푼 없이 탈시설 했으나 대부분 시설 장애인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꿈꾸기도 힘든 실정임. (탈시설 장애인 가족)
- 탈시설 후 탈시설 체험홈 까지는 간헐적으로 지원되나 이후에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게 현실임.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일자리 지원 및 현실적인 소득보장 제도 마련이 필요함(송은일 센터장)

④ (동작구) 거주시설 장애인이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 거주하기까지 교육 및 기술 지원대책

○ **(배경 및 현황)** 탈시설 장애인이 탈시설 전후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정착하기까지 정보제공 및 통합적 교육 필요, 현재 자립생활센터에서 거주시설연계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, 인력 지원 및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임.

- **(논의)** 탈시설 후 강북장애인IL센터, 해뜨는양지장애인IL센터에서 지원하는 ILP와 자립생활기술훈련, 동료상담을 접할 수 있었고 자립심 및 장애인 인권 등 장애인활동가로써의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었음. 특히 멀티미디어 기술교육 후 그 기술을 바탕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을 위한 '장애인인식개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. 현재 프리랜서 동료상담가로도 활동하고 있음.(탈시설 장애인 이선자)
- 거주시설연계사업 및 IL사업에서 업무를 병행하고는 있는 개별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교육 기회 마련과 기술교육 필요.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. (장순욱 구의원)
- 정부가 발표한 「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」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정착지원을 위한 소득 대책 마련, 주거 마련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. (송은일 센터장)

□ 간담회 논의 결과

○ 지역사회(동작구) 내 지자체, 지역주민, 장애인 당사자, 장애인 가족 간 탈시설 지원 대책 마련에 관한 공감대 형성

○ 탈시설장애인 주거 마련 및 소득보장, 교육 등 물리적 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과의 연대 및 인식 변화유도를 통한 정서, 심리적 환경 조성도 무엇보다 중요.

○ IL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, 공동대응, 공동노력이 필요.

○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, 자립생활기술훈련, 동료상담 등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과 개별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